



일주문



총리실 청소년 보호위원
현성 청소년교화연합회장
님은 5일 김대중 대통령으로 부터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어린이 불교학교 열어
입면 봉선사 주지는 19일부터 2박3일간 봉선사와 포천 베스타타운에서 '어린이 여름 불교학교'를 연다.



'승산 스님 가르침' 법문
성광회계사 주지는 25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승산스님의 가르침'을 주제로 법문한다. (02)703-0108



티베트박물관 개관 법회
현장 대인사 주지는 8일 티베트박물관 개관 법회를 봉행했다. 박물관에는 불상, 만다라 등 6백여점이 전시돼 있다.



백담사서 영불만일회
김재일 영불만일회 회장은 8월6일부터 2박3일간 강원도 설악산 백담사에서 '제6차 전국 영불만일회'를 개최한다.



해병불자회 정기법회
김흥국 해병대불자회 회장은 29일 오후 3시 강남 삼성동 봉은사에서 해병대불자회 7월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KBS 사회교육방송 출연
김규범 대한불교청년회장은 8월6일부터 12일까지 KBS라디오 사회 교육방송 '종교와 인생'에 출연한다.

전북불교대 미주 총동창회 결성



전북 불교대 통신반을 수감 중인 미국 내 한인들이 전북불교대 미주 총동창회를 결성했다. 뉴욕, 워싱턴, 하와이 등 미주에 거주하는 전북불교대 통신과정 학인들은 최근 뉴저지 대원식당에서 모인(사진)을 갖고 앞으로 △법사 초청 법회 개최 △불교성지순례 △불교도서관 설립위한 불서 모집 △묘교방문 등의 추진과 동창회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기모임은 2개월에 한 번씩 마지막 토요일 오후 7시 뉴저지 불국사에서 갖는다.

“태교는 업장 녹이는 인성교육”

한국 태교연구소 개설 구본일 소장



“태교는 똑똑한 아이를 만드는 조기 교육이 절대 아니예요. 마음을 비우고 부모와 태아의 업장을 녹여나가는 인성교육이자 수행입니다.”

최근 사단법인 한국태교연구소를 개설, '불교 태교(胎敎)'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구본일(여·49) 소장은 '불국도를 가뭇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올바른 태교문화를 시급히 정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구 소장은 극성스러운 자식사랑에도 불구하고 태교는 이미 늦고, 더욱이 욕심과 집착이 앞선 잘못된 태교는 오히려 아이를 망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임신모의 업장을 녹이고 선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태교의 본뜻인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오직 태아를 전제로 만들겠다고만 하면 아이가 배우

는 건 음악이 나열어가 아니라 어머니의 욕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반 태교이론과는 다른 구소장의 독특한 교육은 '명상태교'에 담겨있다. 하루 15분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집중하는 훈련 또는 참선을 하면 자아반성과 감사의 마음이 싹트면서 심성이 깨끗해진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엄마와 태아의 태담(胎談)을 통해 태아의 집중력과 두뇌기능이 향상되고 바른 인생관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일반 와세다대에서 동양미술사를 전공한 구소장은 13년전 홍콩 흥법원에서 대구 파계사 주지이자 태교연구가인 성우 스님으로부터 명상태교의 중요성을 배워 불모지나 다름없는 불교 태교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태교와 육아법> <흰연꽃 피는 소리> <토방 제> 등 태교육아서를 내기도 한 구소장은 오는 9월 개원식을 열고 불교 태교이론 정립, 강의 및 실습, 세미나 개최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13~15일 남양주시 봉인장수련원에서 청소년-일반인-임신부를 위한 첫 '명상태교 캠프'를 가진 구 소장은 26~27일(대학생 일반인 임신부)과 8월 7~8일 대구 파계사에서 태교수련회도 갖는다. (02)738-8813

김재경 기자 jkim@buddhapa.com

“그늘진 영혼에 재할꿈 심었으면 ...”

장애인들기 산사음악회 여는 거조암 주지 돈명 스님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일 이야기로 불자들이 해야 할 신행이죠.”

지체장애인 후원기금 마련을 위해 오는 27일 오후 7시 대구 팔공산 거조암에서 500나한의 개채불사 회향과 함께 산사음악회를 여는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 후원회장 돈명 스님(거조암 주지)은 “특별한 때에나 한 번 장애인들에게 일시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 보다는 그들이 정신적 물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때문에 스님은 “이번 음악회를 통해 모아진 수익금

으로 장애인 재활 센터를 개소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함께 공동자활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생각”이라며 사찰에서 쓰다 남은 양초를 수거, 자생산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 시스템도 갖출 계획이다.

500나한 개채불사의 회향 공덕으로 장애인들이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원력을 모은 돈명 스님은 3년전부터 장애인들을 초청해 사찰순례를 겸한 야외회를 베푸는 등 장애인들을 후원해 왔다. (054)335-1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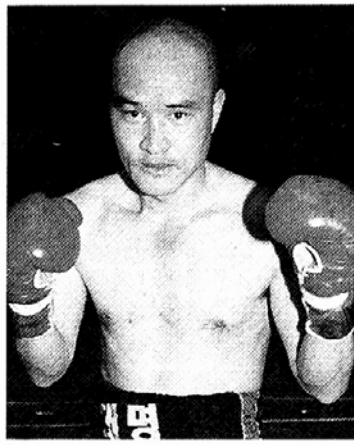
김재경 기자

‘한라불교’ 대표 조맹수 씨



조맹수(46·사진) 신임 한라불교신문 대표이사는 4일 취임식을 갖고, “불교계 신문인 만큼 일반 사회기사보다는 환경관련 기사에 비중을 두겠다”면서 “8월부터는 현재 격주간 발행을 주간 발행으로 쇄신, 지면과

급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조 대표이사는 서귀포시 출신으로 광주대와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을 졸업, 제민일보 주일 특파원, 논설위원, 편집국장 등을 역임했다.



“포교위해 오른 사각링도 선방”

20년 권투 접는 대명 스님

“링에서도 포교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운 대신 누비 장삼을 걸치며 20여년간 복서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체력은 아직도 자신이 있지만 불혹이란 나이의 부담감을 쉽게 떨칠 수 없었습니다.”

29일 오후 2시 동국대 경주 체육관에서 고별전을 갖는 분황사 대명 스님은 수행자로서 권투 포교를 위해 링에 올랐던 그 동안의 감회를 이렇게 털어냈다.

현재 분황사에서 천일기도 정진과 하루 5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마무리 훈련에 한창인 스님의 고별전 상대는 前 세계 챔피언이었던 홍수환씨(24). 15년 이상의 나이차와 체력을 극복할 수 있느냐는 주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홍씨가 3전3승의 강권자를 갖고 있기는 하나 한번 해

29일 홍수환 아들과 고별전 은퇴후 심판·선수도 활동

불만 한 상대라고 자신감을 피력한다. 대명 스님이 복서로서 활동하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96년 MBC 신인왕전에서다. 1회전에 강력한 우승후보를 만나 얻어맞고 링에서 쓰러졌을 때 이를 지켜보던 어느 보살이 “그렇게 스님을 두들겨 패도 되냐”고 소리를 질러 장내가 웃음바다가 됐다. 이런 불자들의 격려와 응원이 20여년간 스님을 링에 붙잡아 둔 가장 큰 이유다.

78년 인왕산 본원정사에서 출가 한 뒤, 상계동 사천왕사, 남양주 봉선사 등에서 수행 정진했던 스님은 인천체고와 인하대 체육화과를 거쳐 88년부터 5년동안 대전 보문중 교법사 겸 체육교사를 지내기도 했다.

분황사와 골굴사 어린이 청소년 수련회 지도법사인 대명 스님은 은퇴 후 권투 심판도 활동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골굴사 선무도 대학원에 입학해 선무도와 청소년 포교에 앞장선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a.com



조동종 총무원장 심월 스님 취임법회

대한불교 조동종 제6대 총무원장 심월스님이 12일 서울 강서구 용천사에서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명종, 발원문 낭독, 총무원장 임명패 및 임명장 수여, 법어, 취임사, 축가 등의 순으로 열린 이날 취임법회에는 조동종 종정 지명스님, 조계종 재무부장 성월스님, 법사종 하순성 종정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동참했다.



김천 직지사 생전에수재 회향

김천 직지사주지 법성은 10일 만덕전에서 생전에수재 회향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예수재에는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 스님, 전종회의장 법동 스님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녹원 스님은 “생전에수재 회향을 계기로 재발심해 가정에서도 수행정진에 충실한 참불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파주 호국 총의사 봉불점안

경기 파주 호국 총의사는 10일 법당에서 봉불점안법회를 봉행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최정수 명예회장을 비롯해 2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부산 용화사 주지 연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불사가 군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정신력 증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종단협 봉축열차 회향법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는 7일 조계종 총무원 1층 불교 회관에서 ‘전국지하철 자비의 말씀 계시판 설치 고불 및 봉축열차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단협의회장 정대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해 풍경소리 대표이사 성운스님, 고건 서울시장 등 1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손조각품 雪山白玉佛



釋迦世尊께서成道成佛
雪山玉石으로造成한因福
慈悲하신그透徹智慧가
具足하신 無上圓滿聖像
입니다.
二五五五年二月二十一日
小 衲 西翁謹書

주전서



▶ 세계불교도우의회(W.F.B)한국본부 (주)코리아 붓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02)864-8834~6 / FAX : (02)839-2185 인터넷 : www.korea buddha.co.kr